20191020-1266□-□□_□□□□□ 19. 10. 18. □□ 10:24 Page 1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19년 10월 20일(주일) 제1266호

"다음세대 응원단을 모집합니다"

오늘(20일), 다음 주일(27일) 차세대 교사 모집

차세대사역본부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2020 차세대 교사 모집 행사가 '다음세대 응원단을 모집합니다'를 주제로 오늘(20일)과 다음 주일(27일) 온누리교회 서빙고, 양재(도곡) 캠퍼스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차세대 교사 대상은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자 세례 받은 성도이다. 신청은 서빙고, 양재, 도곡교육관 로비에 설치되는 차세대 교사 모집 홍보 부스에서 하면 된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는 최소 197명(서빙고 83명, 양재 84명, 도곡 30명)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사랑부는 최소 43명(서빙고 28명, 양재 5명, 꿈사랑부 10명, 사랑챔버 8명, 온사랑합창단 2명)이 더 필요하다. 나머지 캠퍼스 교사 모집 행사는 10월 말과 11월에 자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차세대사역본부는 교사로 지원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신입교사 사명교육'을 한다. 8주 동안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키우는 양육과정이다. 서빙고 목요반 11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목 오후 7시 30분, 서빙고 토요반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토 오전 7시까지 진행된다. 양재와 도곡교육관은 11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화 오후 7시 30분에 실시할 예정이다.

선생님과 함께 예배를.

문의: 서빙고 02-3215-3521
양재 02-570-7436
사랑부 02-3215-3268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평택 온누리교회 예배당 이전 감사예배

10월 27일 오후 5시 30분 2층 본당

평택 온누리교회가 10월 27일(주일) 오후 5시 30분 2층 본당에서 예배당 이전 감사예배를 드린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평택 온누리교회는 이번 달 초 예배당을 이전했다. 새 예배당 주소는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739-2번지 아원프라자 2층이다. 새 예배당에서는 약 350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 2층에는 예배당 외에도 새가족실, 성찬실, 담당목사실, 목회지원실이 있다. 3층에는 차세대 예배부서가 있고, 4층과 5층에는 성가대실과 샤이닝글로리가 있다.

손신국 목사(평택 온누리교회)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기도로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면서 "새 예배당에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문의: 031-651-9680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19 TGC코리아 컨퍼런스 '하나님이 가라사대'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

복음주의적 개혁신학을 전파하고 있는 세계적인 석학들의 주옥같은 강의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들을 수 있다. 2019 TGC코리아 컨퍼런스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10월 30일(수)부터 11월 1일(금)까지 3일 동안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막 오른다. '성경의 권위와 신뢰성'을 주제로 돈 카슨(TGC 대표, 미국 트리니티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브라이언 채플(커버넌트신학대학원 명예총장), 필립 라이큰(휘튼대학교 총장), 스티븐 엄(TGC 부대표)이 강의한다. 문의: 02-570-7447
TGC코리아 02-868-8425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순예배 영상콘텐츠 시청안내

레위기 25:1-12(10월 21일 본문)
본문 주제: 안식 (하나님 앞에 청지기 의식을 가지며 참된 안식을 누리라)
영상 제목: 〈일터와 예배〉 이재훈 목사
내용: 어떤 시각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로이자 도구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은 일을 참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주를 향한 일을 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TtOJiqMkH40
적용질문: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분주하고 쫓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영적인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CGNTV SOON
유튜브에서 'CGNTV SOON'을 검색하세요

"이웃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물하세요"

오늘(20일)부터 엔젤트리 사연 접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물하는 엔젤트리 사연을 받는다. 오늘(20일)부터 3주 동안 교회 로비에 설치되는 사회선교 안내데스크와 목회지원실에 비치된 엔젤트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웃들의 사연, 선물 받을 주소(도로명), 3~5만원 내외 선물을 작성하면 된다. 생물, 꽃다발, 케이크, 상품권 등은 받을 수 없다. 접수된 엔젤트리 사연은 11월 24일부터 4주 동안 교회 로비에 전시된다. / 김영선 기자

기획_ 크리스천을 위한 미니멀 라이프 4-5면 복지_ 위기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멘토' 필요 6면 특집_ 온누리 부흥축제 '인생의 의미' 8-9면

20191020-1266□-□□_□□□□□ 19. 10. 18. □□ 10:24 Page 2

책 읽어주는 목사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J.C.라일 저 | 복있는사람 | 8,500원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를 보는 순간 제목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책이 얇아서 부담이 없었다. 저자가 J.C.라일이어서 더욱 신뢰감을 가지고 선택했다. J.C.라일(John Charles Ryle, 1816~1900)은 청교도 영성을 소유한 지성적 목회자로서 세계 최고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과 함께 19세기 영국 설교자들을 이끌었던 쌍두마차라 불린 사람이다.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는 1장 '기도해야 하는 이유', 2장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3장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를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시작한 글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논지를 가지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속도감 있게 써내려간다. 저자는 개인 기도만큼 소홀히 여겨지는 것이 없는데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곧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사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사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기도의 대상에 대한 앎과 믿음 없이 기도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도는 더 커지고 깊어지기 마련이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다. 책 내용 중에서 마음에 깊은 도전과 깨달음을 준 것이 있다. 이 책에서는 성경의 인물이든 교회사 인물이든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고 말한다. 반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는 진짜 이유는 기도로 제대로 무장하지 않고 허둥지둥 침실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성경에 기도의 위력을 보여주는 엄청난 증거가 많이 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 가운데 태양이 멈추는 일 등 모두 열거하기도 어렵다. 저자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 목소리와 혀를 주시면서 '너는 더 이상 말 못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신다. 기도는 갓 태어난 아이가 우는 것처럼 새롭게 태어난 본성의 일부라고 말한다. 믿음의 첫 행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공갈젖꼭지' 라고 하는 가짜 젖꼭지를 물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우리는 가짜 젖꼭지를 입에 물고 있는 아기들처럼 헛된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빨고 빨아도 만족감이 없는 아이들이 입에서 가짜 젖꼭지를 떼고 "엄마, 맘마!"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마음과 배고픔에 깊은 만족감이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입을 떼고 "하나님 아버지", "아멘"이라고 말하는 순간 기도가 시작되고, 영혼의 만족이 채워져 간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이 책의 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큰 집회에서 전해주는 강력한 설교처럼 눈을 통해 귀로 들려왔다. 책을 소리 내어 읽었다. 글 속에서 현장감이 느껴지고 전해지는 메시지가 마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글을 읽으면서 계속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책을 덮고 어느새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된다.

이 책은 "여러분 기도하십니까?"라고 반복해서 질문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간결하고 명쾌하게 도전하고 있다. 이 책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과 기도를 하고 있으나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바란다.

김현실 목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면 기도는 왜 해야 하나요?"

답: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뜻과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마 6:8).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상황과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다.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지만 인간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이다. 내가 처한 상황을 모두 해석할 능력이 없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이다. 기도는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연인 관계를 두고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남자나 여자 중에서 한 사람은 상대방의 성향이 어떤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까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표현하며 섬긴다. 하지만 다른 상대방은 연인이니까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마음으로 알고 사랑하니까 표현을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연인관계는 깊이 발전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쉽게 끝날지 모른다.

우리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일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을 행운이나 우연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운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일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이나 행운쯤으로 생각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당신의 일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기도를 요구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게 한 다음 하나님이 응답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듣고자 하신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힘이나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알려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서가시며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미 무엇이 가장 선하고 옳은 길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서 행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사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답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의 놀라운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다 알고 계시고, 미리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박사무엘 목사
(부천 온누리교회)

20191020-1266□-□□_□□□□□ 19. 10. 18. □□ 10:24 Page 3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참된 회개(6) 상한 영혼의 제사

시 51:1~19

"자신의 죄인 됨을 통회하고,
새로운 영을 창조해 달라고 간구하며,
상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경을 신앙 인물들의 위인전으로 생각하고 읽는 분들은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삶을 영웅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연약함, 허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다윗의 죄도 있습니다. 그의 무섭고 끔찍한 죄를 있는 그대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전장으로 의도적으로 보내 죽게 만드는 살인죄도 범했습니다. 다윗의 죄를 성경에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신 이유는 다윗 같은 인물도 쓰러질 수 있을 만큼 죄가 무섭고 강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윗도 끔찍한 죄를 범할 수 있었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죄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죄와 싸워 이기며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죄의 끔찍함을 아직 깨닫지 못했거나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고발하기까지 적어도 1년 가까이 양심을 잠재우며 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왕이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던 당시 사회에서 다윗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이후 자신의 죄는 완전범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드러내셨고, 징계하셨고, 책망하셨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다윗의 양심이 깨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숨기고 있던 다윗의 죄를 고발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와 탐욕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갈등이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삶을 살 때 부끄러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신다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요, 손길인 것입니다.

죄를 철저히 자백하고 용서 구하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시로 남겨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시편 51편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회개의 가장 중요한 시입니다. 이 시만 몇 번 읽으면 회개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시는 모든 세대가 참된 회개에 이르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시편 51편에는 참된 회개에 담겨 있어야 할 중요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한 문장, 한 단어도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고백들입니다. 이 많은 고백과 간구들을 세 가지 중요한 회개의 요소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죄를 철저히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과를 지워 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1~2절).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7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9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과거의 죄를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한다고 해서 죄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워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씻어 주십시오"라는 간구로부터 시작하는 회개는 우리의 결단이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스스로의 고백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고백하고 뉘우친들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죄를 지워 주시지 않으면 자백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씻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회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죄와 죄인 됨을 인정하기

"내가 내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옳으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3~4절).

이 고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신의 죄악된 행동을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인 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과 자신의 죄인 됨을 인정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잘못을 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을 잘못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잘못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문제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죄에 온통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깨닫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온갖 쾌락, 유혹, 때로는 지식과 문화로 포장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신의 죄인 됨을 고백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인 됨을 고백하기 위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첫째, 죄악(iniquity)입니다. "뒤틀리거나 구부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자체가 뒤틀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죄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말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신의 주장만이 반복될 뿐입니다.

둘째, 죄과(transgression)입니다. "권위자의 뜻을 어기고, 그 권위를 거슬러 도전하고,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선은 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죄(sin)입니다. "과녁에서 벗어나다",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죄인 됨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뒤틀려있고, 구부러져 있고, 권위에 도전하고, 선을 넘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어야 할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죄인 된 인간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죄악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런 고백을 더합니다. "이 모든 죄가 주께만, 주 앞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범죄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5절).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저도 과거에 저를 소개할 때 모태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설교를 하면서 깨달아보니까 모태신앙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태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태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를 범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할 마음이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모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원망하거나 조상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도 좋지만, 모태로부터 내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영

둘째, 더 나아가 다윗은 자신 안에 성령님께서 새로운 영을 창조해달라고 간주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10절).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는 신실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참된 회개는 단지 죄를 용서해주시고, 죄를 씻어달라는 단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안에 본성 자체가 뒤틀리고, 왜곡되고, 잘못되고, 반역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새로운 창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 진실한 마음은 성령으로 다시 창조될 때만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3면에 계속〉

20191020-1266□-□□_□□□□□ 19. 10. 18. □□ 10:24 Page 4

기획 크리스천을 위한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 1. 체면 2. 불평불만 3. 걱정

예수님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다!

불평불만, 자신과 주변 사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예수님처럼 불평하거나 이익 채우려고 따지지 말아야

요즘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가 유행이다. 미니멀 라이프는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생활방식을 말한다.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미니멀 라이프다. 신앙생활에서도 미니멀 라이프가 꼭 필요하다. 그토록 자유로워야 할 크리스천들을 옥죄고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미니멀 라이프 그 두 번째 제안은 불평불만 하지 않기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불평은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못마땅하게 여김' 또는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냄'을 의미하고, 불만은 '마음에 흡족하지 않음(불만족)'이라는 뜻이다. 불만족해서 언짢은 마음과 그 못마땅함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불평불만이다.

불평불만에서 기인한 사건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들에게 엽총을 쏜 사건(2016년), 지도교수에게 불만을 품은 대학원생이 사제폭탄을 제조한 사건(2017년), 한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회의장에서 유리창을 깨고 자해하며 검박한 사건(2018년), 수도사용 문제로 주민과 마찰을 빚은 70대 노인이 면사무소 직원에게 엽총을 발사한 사건(2018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불평불만에서 기인한 사건사고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2017년 인사평가에 불만을 품은 일본 오사카 시청 직원이 상사 머리에 술을 들이붓기도 했고, 지난 4일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60주년 기념식에서 한 노인이 연금이 적다고 마크롱 대통령에게 불평하자 마크롱이 "국민이 불평불만을 그만하면 프랑스가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이처럼 불평불만에서 기인한 사건사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다. 약하게는 언어적 불평불만에서 끔찍한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성경에도 나타난 '불평불만'

성경에도 불평불만에서 기인한 사건들이 많다. 민수기에는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때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타올라서 진의 바깥쪽을 태웠습니다"(민 11:1).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진군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광야 여행으로 인한 고생 때문이었다. 시내산 근처에서 근 1년 동안 평안한 생활을 하다 메마르고 험난한 광야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불평불만의 원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들은 하나님이 노하셔서 진영 끝을 불살라 버리심으로써 징벌하셨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다행히 징벌을 멈출 수 있었다(신 11:2).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은 끝이 없었다. 이번에는 만나에 싫증났다면서 고기를 달라고 불평불만 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 줄 수 있을까? 이집트에서는 생선,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을 공짜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식욕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뿐이니!'"(민 11:4~5).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것도 잘못이고, 자신들에게 고기를 줄 능력도 없는 분이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만나)은 너무 한심스럽기 그지없다며 불평불만을 쏟아냈다.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잠재워야 할 모세조차 불평불만을 했다.

"저 혼자만으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제게는 벅찹니다. 주께서 제게 이렇게 하시겠다면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당장 저를 죽이시고 이 곤란한 일을 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민 11:14~15).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 이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불평불만 사례가 많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창 3:12)며 불평하고 책임을 회피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동생 아벨을 죽였다(창 4:5~8).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경고를 듣고 모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게 되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며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요나 4:1~3). 초대교회에서는 당시 그리스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자신들 파의 과부들이 홀대받는다고 불평했다(행 6:1).

불평불만이 손해인 세 가지 이유

불평불만을 하면 왜 좋지 않은지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 뇌과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불평불만은 세 가지 이유에서 손해라고 말하고 있다.

첫째, 불평을 하면 할수록 뇌 건강을 악화시킨다. 한 가지 일을 반복하다보면 뇌의 시냅스가 발달해서 점점 숙련이 되는데, 이 원리가 감정이나 생각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불평할수록 뇌는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결국 수시로 불평불만이 나오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불평불만은 쉽게 전염된다. 불평불만은 주변 사람들까지 기분 나쁘게 만든다. 1948년부터 미 매사추세츠의 프래밍험 마을에서 주민 5천2백 명을 대상으로 60년 동안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이나 분노조절장애, 외로움 등은 한 번 발생하면 주민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가는데, 행복한 감정은 쉽게 전파되지 않았다고 한다.

셋째, 무엇보다 몸을 망친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분비된다. 아칸소주립대 연구팀에 따르면 '회사나 가정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보통 사람에 비해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량이 2배가량 많다고 한다. 코르티솔 호르몬 때문에 면역력이 더 낮았고, 혈압은 높았으며, 심장병 발병 확률과 비만, 당뇨병에 시달릴 확률도 더 높게 나타났다.

솔직히 세상을 살다보면 불평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수많은 불평불만거리가 있다. 그렇다고 과격하고, 직설적이고, 습관적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불평불만을 늘어놓아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2000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소프트뱅크의 주가가 세계 IT시장에 닥친 '닷컴버블' 붕괴로 100분의 1로 곤두박질쳤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은 이때 인터넷이 곧 부활할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ADSL)를 확장시키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총무성(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 해당하는 일본 행정기관)과 일본 거대 통신기업 NTT가 움직여야 했는데 지지부진했다. 전혀 협조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ADSL 서비스를 성공시킨 이후 손정의 회장이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세상이 잘못된 거고, 정치인이 문제고, 경기가 나쁘다느니 그런 변명 따위를 해봐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불평불만은 결국 자신의 그릇을 작게 만들 뿐이다. 그럴 틈이 있다면 목숨 던질 각오로 맞서라. 그때야 파문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조상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예를 들면서 "불평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전 10:10).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며 "정신 차리고 불평하지 말라"고 했다(벧전 4:7~9).

그 누구보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다. 부당하거나 억울한 상황을 수도 없이 직면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고 따지지 않으셨다. 불평불만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불평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불만거리(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자. 꼭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다!

20191020-1266□-□□_□□□□□ 19. 10. 18. □□ 10:24 Page 5

오늘 당신의 옥수수는 무엇입니까?

일상의 선물 인정하고, 이웃과 나누고, 매사에 감사하자!

한건수 교수
(수원 온누리교회,
국민대 겸임교수,
감사연구소장)

넓은 옥수수밭 한가운데에 길을 만들어놓고 달리는 경기를 상상해 보자. 이 경기의 목표는 그곳을 달려가면서 가장 큰 옥수수 하나를 따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다. 빨리 달려야 하고, 옥수수는 하나밖에 고를 수 없다. 지나온 길은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 그러니 어느 순간 가장 크다고 생각되면 그 옥수수를 따야만 한다. 이 경기의 이름은 무엇일까? 바로 '시간(Time)'이다. 국민대학교 이의용 교수는 시간의 개념을 옥수수밭 경주에 비유했다.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되돌릴 수 없다. '오늘 하루 무엇을 했지?'라는 허탈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뿌듯하게 잠자리에 드는 날도 있을 것이다. 그날의 옥수수에 따라 달라진다. 당신의 오늘 하루의 옥수수는 무엇인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당신의 인생에서 꼭 따야 하는 옥수수 하나를 생각해본다면 무엇이 되겠는가?

당신의 감정의 하수구는 누구인가?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옥수수를 잡아야 할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면, 일상에서 버려야 하는 것을 분별해서 꼭 필요한 것만을 선택하는 미니멀 라이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한번쯤 점검해봐야 하는 키워드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1~33).

믿음의 경주에서 빠질 수 없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조금만 고민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완전히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단정 지어 말씀하셨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와 함께 출애굽 했을 때 "광야에서 굶어죽게 되었다"며 염려를 넘어 불평을 하였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 매일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그들은 "물이 없다"며 또 불평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가? 며칠 전 버스를 탔는데, 맨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통화하면서 욕을 남발했다. 듣고 싶지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남자의 육두문자 가득한 통화내용을 들어야 했다. 점점 불쾌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 불쾌한 느낌은 생각보다 오래 남았다. 통화하는 그 사람과 전혀 관계도 없고 상황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제3자인 내가 이렇게 불쾌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친히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쏟아놓는 불평을 들으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 **"우리가 멈추지 말고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선물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며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다."**

'불평'의 사전적 의미는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냄'이다(표준국어대사전). 못마땅한 상태 즉, 불만 상태에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불평'이라고 한다. 불평이 일어날 때는 상황과 대상이 존재한다. 한 가장이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일로 인해 불만을 가득 품은 채 퇴근했다고 가정해보자. 준비된 밥과 반찬이 가장의 불만을 잠재울만한 잡곡밥과 맛난 고기반찬이 아니라 식은 밥과 아침에 먹다 남은 나물이 전부였다면 가장의 기분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밥에서 돌 같은 것이 나왔다면 자연스레 가장의 입에서 아내를 향한 불평이 쏟아질 것이다. 갑자기 화내는 남편에게 일격을 당한 아내의 화가 옆에 앉은 큰아들에게 향한다.

"너 숙제 다했어?" 큰아들은 기분 나쁜 엄마의 불평에 대충 식사를 마친다. 그리고 일어나려는데 동생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형을 보며 웃는다. 큰아들의 불평은 자연스레 동생에게 향한다. 형한테 쓴 소리를 들은 동생은 방으로 들어가서 놀아달라고 쫓아오는 강아지에게 화풀이한다. 이렇게 불평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불평은 힘이나 권력이 있는 대상에게서 시작되어 그룹에서 가장 약한 구성원을 향해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소아정신과 서천석 의사는 공동체 내에서 불평의 대상이 되는 약한 대상을 가리켜 '감정의 하수구'라고 표현하였다. 평소 쌓여있던 감정의 찌꺼기는 불평을 통해 감정의 하수구에게 전달되고, 감정의 하수구는 다른 감정의 하수구를 만든다. 당신의 감정의 하수구는 누구인가? 만약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평소 부정적 감정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대상에게 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사소하지만 일상의 날씨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자주 불평한다면 불평의 대상이 무의식중에라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 〈일상영웅〉의 저자 팀 체스터는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자주 화가 난다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는 것일 수 있다. 삶을 하나님 편에서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을 잘 이행하고 있지 않은 계약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행동 아닐까?

일상을 감사로 채우기

우리의 옥수수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리스도인이 선택해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한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빌 4:11).

불평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일상에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새로운 선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일 주어지는 선물이 있다. 그러나 매일 주어지기에 그 선물이 '만나'와 같아서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있다. 따라서 만나를 보면서 또 다시 없는 것을 찾으며 불평하는 모습으로 되돌아가곤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만나를 제대로 음미하는 방법인 감사(gratitude)로 일상을 채워야 한다.

감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 매일의 만나를 음미할 수 있도록 돕는가? 한번은 수원에서 서울로 향하는 용서고속도로를 타고 가던 중에 터널 안에서 멈춰야 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시설 관계자가 다급히 뛰어와 내 차를 멈추고 터널 밖으로 나가라고 다급히 손짓했다. 알고 보니 차 한 대가 전소(全燒)되는 바람에 터널 안에 있던 모든 차가 그대로 멈춰 선 것이었다. 그 결과 예정된 미팅도 못 가고 터널 밖에서 몇 시간 동안 발을 구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크게 깨달은 게 있었다. 그동안 그 터널을 수도 없이 다녔지만 이런 사건이 처음 일어났다는 사실과 별 문제 없이 터널을 다닌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고가 일어나봐야 그 이전의 평범한 상태가 얼마나 좋은 상태였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라. 평범한 일상 같지만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만나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만나로 인한 기쁨이 첫날보다는 둘째 날, 둘째 날보다는 셋째 날 줄어드는데 이를 심리학에서는 '쾌락적응(Hedonic adaptation)'이라고 한다. 미국 시카고대 심리학자 에드 오브라이언 연구팀은 매일 동일한 선물을 받을 때 점차 만족감이 떨어지곤 하는데 이를 유지할 방법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것은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다. 동일한 선물을 받아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기쁨이 오래 유지되었다. 받은 선물에만 집중할 경우 어느 순간 더 좋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행복감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나누는 사람은 행위 자체에서 얻는 기쁨으로 인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멈추지 말고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다.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큰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선택한 옥수수는 무엇인가?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20191020-1266□-□□_□□□□□ 19. 10. 18. □□ 10:24 Page 6

"꿈을 포기하는 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온누리청소년센터, 위기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멘토' 필요

위기 청소년들은 또래들보다 먼저 세상과 마주한다. 그런데 완충제 역할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홀로서기를 해내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곧잘 넘어지곤 한다. 살 집을 구하는 것부터 진학이냐 취업이냐를 선택하기까지 무엇 하나 쉬운 결정이 없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더 어렵고 힘들다. 혼자 견디고 또 견디다 결국 꿈을 포기하는 위기 청소년들이 정말 많다. 위기 청소년들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멘토가 꼭 필요하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또 하나의 사명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위기 청소년들도 성인이 된다. 24세가 넘으면 쉼터를 나와 스스로 생활해야 한다. 때문에 위기 청소년들은 고교 시절부터 자립을 준비한다. 그런데 자립을 시도한 수많은 위기 청소년들이 '위기의 회전문'을 경험하고 있다.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자립에 성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다시 위기 청소년이 되고 만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오랜 시간 꾸준한 건의를 통해 지난해부터 여성가족부가 위기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전국에 6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온누리복지재단에서도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을 신규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4일 온누리청소년센터를 방문해서 자립에 성공한 이요셉 형제(35세)와, 자립 중인 황지우 형제(23세),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전지민 군(19세)을 만났다.

꿈꾸는 청소년 전지민 군(우)과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이요셉 형제(좌).

쉼터 위기 청소년들의 고민 대학에 가고 싶지만 취업을 선택

위기 청소년들도 대학진학을 선호하는데 결국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생활비와 학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형근 소장(온누리청소년센터)은 위기 청소년이 대학진학을 선호하면서 결국 취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과거에는 IMF 이후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가정이 붕괴된 청소년들이 쉼터에서 많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위기 청소년들이 학비 일부분만 감당하면 됐는데 지금은 온전히 혼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학재단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연결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 센터에도 내년에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이 3명이나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요셉 형제(35세)는 자립한지 15년이 지났다. 성인이 되고 바로 취업을 했는데 사실은 대학에 가고 싶었다.

"군포하나로에서 생활하면서 목공예와 도예를 배워서 대학입시를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수능시험을 망쳤어요. 재수를 해서라도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안산에 있는 공단에 취업을 했어요. 적성이 맞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재수할 형편만 되었어도 대학에 진학을 했을 것 같아요."

전지민 군(19세)은 15년 전 요셉 형제와 비슷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 대학 진학을 하고 싶은데 등록금을 마련할 일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지민 군은 중학생 때 아버지의 폭력으로 집을 나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꿈을 찾았다. 안무가가 되는 것이다. 초등학생 때 교회학교 율동팀에서 활동하던 추억을 되살려 고등학교 1학년부터 춤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춤은 제 인생이에요. 춤을 추면 행복하고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무엇보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아요. 쉼터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되고요. 쉼터를 재건축할 때 저를 위해 4층에 전신 거울을 설치해주실 만큼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지민 군이 관심 있는 분야는 코래오그래피(어반댄스)다. 코래오그래피는 음악에 맞춰 안무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정형화되지 않은 자유로움이 특징이다. 지역 대회에서 개인 1등 1회, 단체 1등 2회 수상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데 딱 한 가지가 문제다. 대학 학비다. 대학입학이 확정되면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볼 생각인데 뜻대로 될지 미지수다.

"일단은 아버지께 연락을 해보려고요. 3년 만에 연락을 하는거라 사실 걱정이 돼요. 3년 만에 연락한 자식이 학비를 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상상이 안되거든요. 일단 실기시험이 끝나면 당장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부터 해결할 생각이에요. 아버지 소득이 있어서 저소득층장학금이나 지원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요셉 형제와 지민군 사례처럼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는 드물다.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학비, 주거비,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취업은 쉬울까? 대학진학보다는 문턱이 낮지만 취업을 해도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요셉 형제도 첫 번째 직장이었던 안산공단을 금방 떠났다.

"월급은 꽤 많았는데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게 제 적성이랑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고 피자집에서 근무했어요. 피자집 일은 제 적성에 잘 맞아서 11년이 넘게 일했어요. 지금은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못다 한 공부가 하고 싶어서 방송통신대학에서 경영과 사회복지학을 배우고 있어요."

황지우 형제(23세)는 좋은 멘토를 만난 덕분에 일을 배우면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지우 형제는 19살 때부터 문화재 복원 일을 배우면서 자립을 준비했다. 1년 동안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배웠는데 건설현장 특유의 문화가 적성에 맞지 않았다. 군대를 전역하고 다시 군포하나로청소년중장기쉼터에 입소했는데 온누리교회 한 성도가 지우 형제의 후원자가 되겠다고 나섰다. 그 성도가 충청도 진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착실하게 돈을 모으고, 일을 배울 수 있게 후원을 해주고 있다. 지우 형제는 꿈을 찾을 때까지 목돈을 모으는 게 목표다. 2교대 근무가 힘들기는 해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고 했다.

관심과 멘토링이 더해진다면

"가장 만만한 게 고시원이에요. 고시원 방세로 한 달에 40~50 만원을 내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면 돈 모으기가 정말 어려워요. 좋은 직업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더 힘들어요. 일단 나가야 하니까 고시원에 갔다 다시 쉼터로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는 청소년들의 주거, 의료,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가 안정되지 않으면 취업을 해도 문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는 위기 청소년들이 지낼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원 해주고 있다.

이 외에도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응원과 격려, 후원을 해줄 멘토가 필요하다. 다양한 직업적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인이라면 더 좋다.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 절반 정도가 교사나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꿈꾼다.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교사와 사회복지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도 위기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인, PD,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인을 초청해서 특강을 열기도 한다. 최근에는 (사)한국코치협회 공익코칭위원회와 연계해 입소청소년의 개별 코칭을 10회기 진행하기도 했다.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는 50(쉼터와 자립지원관, 꿈학교 전체인원)여 명의 위기 청소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다. 온누리청소년센터의 지극한 섬김과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멘토링이 더해진다면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을 것이다. 지민 군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위기 청소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시도도 해보지 않고 꿈을 포기하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문의: 031-399-7997

20191020-1266□-□□_□□□□□ 19. 10. 18. □□ 10:24 Page 7

부모들을 위한 추천도서

“아이 문제는 100%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
노경선 저 | 예담friend | 12,000원

부모가 아이에게 일관되게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는 “우리는 너를 바라보고 있고, 너의 말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단다. 너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란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너를 좋아해. 네가 말하는 것을 잘 알아듣고, 너의 반응을 존중해서 대답해줄게”이다.

이 시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메시지를 적절하게 주고 있을까? 이 시대 부모들은 너무 바쁘다. 또 너무 많이 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 아이를 위한다는 포장의 달인이 된지 오래다. 과연 그것이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부모들을 위해 소아정신과 명의 노경선 박사가 40년 경험을 엮어냈다. 부모의 역할과 아이들의 심리와 발달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노경선 박사는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은 ‘관계와 친밀’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이의 문제는 100%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경고한다. 또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부모님과 나는 어떤 부모인가를 돌아봐야 한다. 부모의 양육 패턴이 대물림되기 때문이다. 건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늘 민감하게, 행동으로, 한결같이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노경선 박사는 다양한 문제 상황별 대처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거칠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 대처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아이들의 공격성 대부분은 남을 해칠 의도가 없다. 단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의지이다. 공격성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사회성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이는 상대에게 보내는 신호이다. 부모는 이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서 반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이는 공격성을 적절히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부모가 반응을 하지 않게 되면 아이의 공격성은 더욱 거칠어진다. 공격성의 표현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쓸 수 있다.

첫째, 부모자식관계는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 아이가 부모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부모의 설득에 크게 반항하지 않는다.

둘째, 공격적 행동이 호기심과 탐색의 결과일 수도 있다. 구체적인 행동 규칙을 알려주고 아이가 지키지 않았을 경우 타임아웃 방법을 쓸 수 있다. 아이의 분노나 공격적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알려주고 그대로 이행하면 된다.

셋째, 아이의 행동은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 따라서 협조적인 행동을 할 때 칭찬을 많이 해주면서 긍정적인 행동을 독려하고, 공격적이고 나쁜 행동을 할 때는 무관심으로 반응하거나 타임아웃 방법을 쓴다.

이외에도 책에서는 참을성이 없고 충동적일 때, 거짓말을 할 때, 욕을 할 때, 형제간에 다툼이 심할 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할 때,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인 태도를 보일 때,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위축된 것 같을 때, 성적인 행동을 할 때, 도벽이 있을 때 등 아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새로나온 음반

하나님의 크고 높은 마음을 노래하다

〈주나목워십5〉
위즈덤 페이퍼

문영재 목사가 8년 만에 주나목워십 5집 앨범을 발매했다. ‘주나목’은 ‘주님은 나의 목자’의 약자이다. 문정웅 목사(뉴욕 주나목교회)와 문영재 목사(온누리교회) 형제로 이루어진 듀엣이다. 이번 앨범에는 7곡의 자작곡과 4곡의 찬송가 등 11곡이 수록되었다. 특별히 2번 트랙 ‘아침이 오면’, 4번 트랙 ‘축복의 길’, 5번 트랙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는 문영재 목사의 자녀(아들 문예목(10)과 딸 문예형(6))가 함께 녹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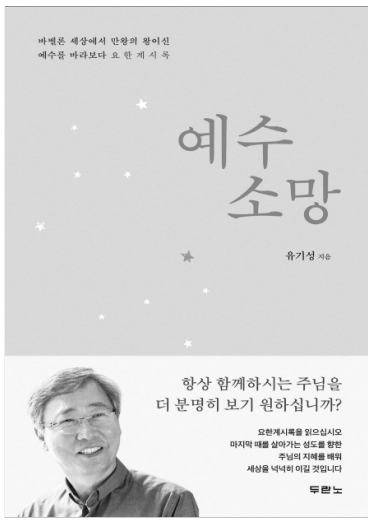
주나목워십 5집에서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끄신 순간을 노래로 담아냈다. 2018년 앨범 발매를 앞두고 문정웅 목사와 문영재 목사의 아버지가 소천했다. 그 이후 형제는 앨범 발매를 미루고, 하나님 곁에서 쉼을 누리실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며 하나님의 크고 높은 마음을 이번 앨범에 담아냈다.

주나목워십 5집 앨범에는 문영재 목사의 온 가족이 참여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함께 들을 수 있는 앨범이다. 문영재 목사는 주나목워십 5집 앨범을 이렇게 소개했다.

“형제의 고백으로 시작된 주나목의 노래가 이제는 각자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의 고백으로 이어지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앨범을 통해 개인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란노 신간

시작도 예수, 마지막도 다시 오실 예수



〈예수 소망〉
유기성 저 | 두란노 | 17,000원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는 묵시, 상징, 비유가 많다. 그 때문인지 이단들이 그릇된 해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크리스천은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아야 한다.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밥을 누가 대신 먹어 줄 수 없고, 호흡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듯이 재림하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의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직접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가야 합니다.”

유기성 목사의 신간 〈예수 소망〉을 읽는 것만으로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아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책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선한목자교회 주일강단에서 선포된 〈요한계시록〉 강해를 엮었다. 유기성 목사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를 종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요한계시록은 시작도 예수님, 마지막도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설명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친밀한 주님으로 만나느냐, 낯선 주님으로 만나느냐’이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바로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기쁨으로 동행하고 싶은 성도들에게도 이 책을 추천한다.

20191020-1266□-□□_□□□□□ 19. 10. 18. □□ 10:24 Page 8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의 참된 의미는 오직 예배 … 온누리 부흥축제 2,200여 성도 참석

(1일 평균)

2019 온누리 부흥축제의 메시지는 단호하고 분명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삶의 목적과 의미는 오직 하나님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이자 목적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 번 재확인시켰다.

지난 16일(수)부터 19일(금)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2019 온누리 부흥축제 '인생의 의미'가 막 올랐다. 집회기간 동안 일일 평균 2,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석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온누리 부흥축제 '인생의 의미'에서는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 라비 재커라이어스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예수인가?', '인간 존재의 의미는?'을 주제로 강의했다. 라비 재커라이어스는 "이 모든 질문들의 답은 하나로 귀결된다"면서 "참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선포했다.

부흥축제를 찾은 성도들의 반응 또한 매우 뜨거웠다. 황성운 성도(사랑의 교회)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심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이노우에 테루코 사모(사이키그리스도복음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어떤 것이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배웠다"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참가자 인터뷰 |

"삶의 본질을 찾았더니…"

"이번 부흥축제에 참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사실 요즘 여러 가지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제가 이상한 사람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교회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성공을 위한 수단처럼 변질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흥축제 강의를 들으면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삶의 목적이고, 그 일에 제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면 아무 것도 안 됐는데 하나님 안에서 삶의 본질을 찾으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뚜렷하게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 강상기 순장(S브릿지공동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인간에게 있는 죄와 고통과 죽음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의 죄와 고통과 죽음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졌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절대 용서 받을 수 없는 나의 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도 예수님 존재 하나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구원해주실 분은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 전우경 자매(SNS공동체)

20191020-1266□-□□_□□□□□ 19. 10. 18. □□ 10:24 Page 9

첫째 날 집회 –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공허합니다. 살면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나오는 수많은 뉴스를 보고 그 사람들은 참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실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는 의미와 목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내 인생의 의미를 나는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등 수많은 질문에 대해 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많은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이유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는 밖에서 찾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의 결과로 생겨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 생겨나게 하지 않았고, 그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완벽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큰 군대 무리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거대한 군대를 어떻게 대적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너무 강하고 거대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원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6절),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시지 아니하셨습니까?"(7절),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12절)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15절).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전쟁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재정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원수를 제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둘째 날 집회 – 왜 예수인가?

진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리입니다. 삶에서 진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그 진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잡혀 온 예수님을 향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이 세상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철학자들은 진리에 대해 정확성과 일관성을 기준으로 삼아 설명합니다. 성경은 3,000여 년 동안의 이야기를 40여 명의 작가들이 66권으로 나눠 쓴 책입니다. 작가들이 살았던 시대와 환경, 직업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모두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관되게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진리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다면 우리의 죄 된 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됨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산을 오릅니다. 이삭을 향해 칼을 빼 든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시고 미리 준비한 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양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기 위해 아무런 흠이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구원자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보다 나은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를 구원해주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지지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빚어 가십니다. 고통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통과 슬픔을 지나는 동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만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까지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와 고통과 죽음이라는 세 가지 큰 문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날 집회 – 인간 존재의 의미는?

인간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냐' 고 질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가치는 정부가 준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가 준 것이 아닙니다. 문화로부터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된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젊은 사람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젊은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모습에 어떤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고 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매우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명도 있습니다. 인간은 성육신화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에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때때로 십자가를 생각한다. 내 눈을 감고 십자가를 보려고 애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분의 큰 사랑이 불덩이가 되어 내 마음에서 타고 있는 것을 느낀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았다고 해도 그것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성육신의 사랑이 우리의 모습이다."

인간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면 증오가 사랑으로 변합니다. 창조, 성육신, 변화를 거치면 완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인간은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인간 존재의 의미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인생의 의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래만 부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교제를 나누라고 합니다. 그분의 의지에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DNA를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마음과 정성,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0191020-1266□-□□_□□□□□ 19. 10. 18. □□ 10:24 Page 10

2019 하반기 Acts29 비전 컨퍼런스

해외비전교회 교역자, 비전위원 등 100여 명 참석

29개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과 비전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제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2019 하반기 Acts29 비전 컨퍼런스'가 지난 18일(금)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렸다.

미국, 일본, 중국, 오세아니아, 아부다비, 베트남 등 전 세계 29개 해외비전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임목회자 및 비전위원, 당회운영위원, 비전교회 협력위원, 캠퍼스 담당목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Acts29 비전 컨퍼런스는 해외비전교회 지역별 모임, 전체모임, 부흥축제 참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019 하반기 Acts29 비전 컨퍼런스에 29개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과 비전위원 등 100명이 참석해서 교제하고 비전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힘들고 어렵지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행복한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했다.

정장철 목사(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비전위원들을 만나서 행복하다"고 말했고, 이중재 목사(네이퍼빌시카고 온누리교회)는 "외로운 이민교회 목회의 어려움을 Acts29 비전 컨퍼런스에서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고 고백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대전 온누리교회 이웃초청예배 '러빙유'

10월 27일 1부, 2부, 3부 예배 6층 본당

대전 온누리교회가 10월 27일 오전 9시(1부), 오전 11시 30분(2부), 오후 2시 30분(3부) 6층 본당에서 이웃초청예배 '러빙유'를 드린다. 예수님을 떠나있는 이웃이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웃들을 초청한다. 이날 예배에서는 한웅재 목사(꿈이있는자유)가 간증한다.

참가신청은 '러빙유 브로셔'에 있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이후 6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신청함이나 5층 목회지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오늘(2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문의: 042-825-3642

청소년부모성장학교 'POWER IMPACT'

부모반 11월 2일, 청소년반 11월 16일 개강

청소년부모성장학교 'POWER IMPACT'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모반 11월 2일, 청소년반 11월 16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양재 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에서 8주 동안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부모 20가정이다.

청소년부모성장학교 'POWER IMPACT' 부모반에서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 자녀신앙교육, 관계기술훈련, 공감 대화법, 부부 이해와 역할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청소년반에서는 나 이해하기, 멘토링, 정체성과 부모이해, 복음과 세계관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해외 아웃리치 일정도 있다. 청소년부모성장학교 'POWER IMPACT'에서는 곽상학 목사, 노희태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 김지홍 장로(연세대 교수), 박성덕 소장(연리지가족부부연구소) 등이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10월 27일까지 전화 및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모집이다. 회비는 청소년과 부모 각각 10만 원. 문의: 02-3215-3532

NGO 더멋진세상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

올해 14회 실시, 3천5백여만 원 지원

NGO 더멋진세상이 올해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를 14회나 실시하면서 3천5백여만 원을 지원했다.

NGO 더멋진세상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 대상은 국내외 선교사와 지구촌 이웃들이다. 올해 NGO 더멋진세상은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선교사들과 지구촌 이웃들의 사지마비, 크론병, 백혈병,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지원했다.

온누리교회 비전 공유하는 '비타민 C'

온누리교회 선교의 비전과 목회철학을 온두라스, 코트디부아르, 가나, 르완다 등 총 8개국에서 온 목회자 150명과 공유했다. 이번 비타민 C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와 Acts29비전빌리지 등지에서 진행됐다. 교회론과 목회철학, Acts29선교비전, 가정사역, 대학청년부, 예배, 양육, 일대일 제자양육, 아버지학교 등 온누리교회 선교의 비전과 목회철학,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비타민 C는 전 세계 목회자와 리더십들과 온누리교회의 선교의 비전과 목회철학 등을 나누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일대일 제자양육'

일대일 심포지엄, 일대일 사역자 80명 참석

지난 12일(토) 서빙고 일대일사역팀에서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101호에서 '포스트모던 시대에 일대일 제자양육'을 주제로 일대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각 공동체 일대일 사역자 80명이 참석했다. 이날 일대일 심포지엄에서는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 '창조신앙', 노치형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이단'에 대한 강의를 했다.

정태선 집사(서빙고 일대일사역팀)는 "일대일 제자양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은혜의 장"이었다면서 "내년 일대일 심포지엄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란노 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11월 13일~12월 11일 오전 10시 서빙고 시온홀

두란노 어머니학교 11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13일(수)부터 12월 11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자녀양육, 기도하는 어머니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11월 19일(화)까지 하면 된다. 회비 12만 원.

문의: 02-2182-9114

두란노바이블칼리지 11월 세미나

두란노바이블칼리지 11월 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한다. '기독교 고전문학과 영성' 세미나가 11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주 동안 오후 2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B2층)에서 진행된다. 박세훈 목사(새문안교회)가 강의한다. 회비는 15만 원. 10월 31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 준다.

문의: 02-2078-3279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박신일 목사(밴쿠버 그레이스한인교회 담임)가 강의한다. 회비는 5만 원. 문의: 02-2078-3456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 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 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 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 명	공동체
1137618	박성환	수원 동누리	1137646	임이삭	SNS	1137670	서동연	여호수아	1137701	정다임	하늘
1137621	김희조	인천 미추홀	1137647	차평화	SNS	1137671	유지선	여호수아	1137702	박수완	하늘
1137622	배하니	대전 드리머스	1137648	홍성은	SNS	1137672	이미래	여호수아	1137703	유소영	하늘
1137624	김창희	S브릿지	1137649	유혜린	SNS	1137673	장진우	여호수아	1137704	김성훈	하늘
1137626	허혜진	Bridge33+	1137650	신채순	강남B	1137674	금초롱	여호수아	1137705	유지온	하늘
1137627	정윤선	Harmony	1137651	신혜숙	영등포구로	1137675	김정은	여호수아	1137706	문은혜	Harmony
1137628	노연정	광명	1137652	송승철	중종로	1137676	한승원	여호수아	1137707	김춘열	인천 동누리
1137629	무영생	부천 소망	1137653	김성민	대전 남누리	1137677	김보람	여호수아	1137709	조선경	강남A
1137630	이정화	대전 동누리	1137654	김경구	J4U	1137678	이종혁	여호수아	1137710	김수진	서초C
1137631	김송이	SNS	1137655	종하은	부천 소망	1137679	이보령	여호수아	1137713	유희안	강남B
1137632	정준혁	SNS	1137656	이승윤	남양주B	1137680	남이화	부천 소망	1137714	비크럼채	김포
1137633	이설빈	SNS	1137657	김진희	남양주B	1137681	남지은	서초C		트리	
1137634	임윤정	SNS	1137658	인미자	강동 말씀	1137682	정찬별	서산온누리	1137715	장주환	SNS
1137635	김윤채	SNS	1137659	김현지	허브	1137683	이미란	강남A	1137716	오은지	SNS
1137636	남현우	SNS	1137660	선현우	허브	1137684	차홍석	서초B	1137717	이 웅	SNS
1137637	이은아	SNS	1137661	장효림	허브	1137685	김문진	대전 동누리	1137718	이현숙	SNS
1137638	안 현	SNS	1137662	조연선	허브	1137686	김주혁	하나	1137719	박기태	SNS
1137639	양지현	SNS	1137663	김영희	대전 남누리	1137687	전현경	대전 드리머스	1137720	김소슬	SNS
1137640	권신비	SNS	1137664	유예진	허브	1137688	김경숙	강촌	1137725	강미정	도곡
1137641	우경은	SNS	1137665	최은지	허브	1137689	박용상	성동광진	1137726	백미숙	인천 서누리
1137642	김나영	SNS	1137666	방희정	여호수아	1137691	나희정	강서	1137728	김태웅	분당B
1137643	김시은	SNS	1137667	구혜영	여호수아	1137692	이희재	분당A			
1137644	박미선	SNS	1137668	손가람	여호수아	1137696	김영주	송파B			
1137645	김준오	SNS	1137669	김동일	여호수아	1137700	민요한	하늘			

Love Sonata 구마모토 기·도·제·목

- ■10월 20일(주일) 러브소나타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10월 21일(월) 구마모토 교회들이 연합해서 부흥의 통로가 되도록
- ■10월 22일(화) 러브소나타 집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를 새롭게 만나도록
- ■10월 23일(수) 이재훈 목사님과 통역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드시길
- ■10월 24일(목) 가스펠 나이트,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 ■10월 25일(금) 한일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영적 기류가 형성되도록
- ■10월 26일(토) 출연진, 봉사자, 스태프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20191020-1266□-□□_□□□□□ 19. 10. 18. □□ 10:24 Page 11

▌청소년부모성장학교 수료 간증

진짜 소중한 믿음

/ 정태영 학생(양재 파워웨이브)

청소년부모성장학교를 접하게 된 것은 아빠를 통해서다. 처음에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봤자 바뀌는 게 얼마나 있겠냐는 마음이었지만 지금 다시 돌이켜 봤을 때 청소년부모성장학교만큼 내 인생의 부피를 늘려준 일도 없었다.

첫 모임을 갔을 때가 생각난다.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예배 말고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것이 처음이었다. 수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처음이었다. 내 기억 속 첫 모임은 그리 좋지 않았다. 그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잘 못하기도 했고, 놀아야 하는 주말 저녁에 매주 이곳에 와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태프들이 항상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었다. 한 기수가 끝났을 때는 망설임 없이 다음 기수 스태프로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한 번의 참가자, 두 번의 봉사자로 참여했던 기간 동안 나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다. 해야 하지만 하기 싫었던 일들도 있었고, 해야 하고, 하고 싶지만 능력이 닿지 않았던 일들도 많았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나의 능력 밖이었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곳에 가보는 경험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다. 특히 아웃리치를 가서 풍족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현지의 선생님들을 보면서 진정한 나눔은 자신이 가질 만큼 가지고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품 안에 있던 것을 떼어 주는 것임을 배웠다.

앞으로 나는 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일들을 마주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일을 마주하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나의 뒤에 하나님이 있음을 깨달았기에 언제나 자신감을 갖고 다음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 진짜 소중한 믿음을 배울 수 있었던 청소년부모성장학교에 너무 감사하다.

6기 청소년부모성장학교
일정: 11월 2일~2월 28일, 오후 7시
장소: 양재 도곡교육관
해외 아웃리치: 2020년 1월 4일~10일
신청: 유선 및 아이스쿨
문의: 010-3215-5801
* 청소년반 스태프(성인) 모집

▌창조신앙스쿨 간증

창조 그리고 회개

/ 이은경 성도(성북공동체)

나는 창세기, 창조론, 창조과학 등 창조가 들어가는 단어가 무척 익숙하게 느껴지고, 대체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관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창조과학회 활동으로 인해 공격당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랐다. 창조과학, 창조신앙, 믿음, 과학 등 조금씩 결을 달리하는 말이 들려왔다. 내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립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창조론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화론과 창조론 내용을 대비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다.

과학을 좋아하는 딸이 만나게 될 이 대립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그러다 소년부에서 한 달 동안 창조과학 특강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와 너무나도 반가웠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걱정이 함께 스며들었다. 우리 딸이 신앙과 과학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답을 찾아야 했다. 여러 고민 끝에 창조신앙스쿨을 듣기로 했다. 주일 오후 사람들이 꽉 찬 강의실과 탁한 공기는 특강을 들으며 머리를 굴리기에는 물리적 환경이 그리 적합하지 않았다. 또 딸아이를 혼자 집에 보내고 교회에 남아 스쿨에 참여하는 결정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매주 창조신앙스쿨에 우선순위를 두고 참여했다. 창조신앙스쿨을 들으면서 내가 창조신앙과 창조과학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계속해서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결심이 들었다. 공부하면 얼마나 무식한지 알게 된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경험이었다.

강사님의 전문성과 열정이 전달되는 강의 또한 내게 큰 도전이 되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하는지 되돌아보았다. 근래 직장일과 관련해서 내가 가진 태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또한 창조신앙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경쟁사회 속에서 약한 사람이 받는 멸시와 천대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았다.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무엇인가 더 나은 사람인 양 베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로 빚어졌음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했던 것을 회개한다.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 간증

진짜 자유인이 되기를

/ 정태선 집사(가정사역공동체)

일대일 동반자와 첫 전화통화에서 참 반듯하고 예의 바르다고 느꼈다. 직접 만났더니 전화상에서 느꼈던 인상 그대로였다. 그런데 일대일 제자양육 4주차에 들어섰을 때 동반자가 너무 짜증이 난다고 했다. 자유롭고 싶어서 교회에 왔고,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쉼을 갖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나는 "올 게 왔구나.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기도하며 그날의 양육을 끝냈다. 황당하고 당혹스런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 그때부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항상 영적전쟁이고, 동반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구원의 확신' 편에서 동반자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의 의미를 작정하고 다시 설명했다. 아울러 신앙인으로서 삶의 기쁨과 의미를 전했다. 신뢰와 순종이 동반자의 기도제목이니 그렇게 해보기를 권면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 자유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 이후 동반자는 착실하게 과제를 해왔고, 속마음도 털어놓기 시작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결혼할 수 없었던 그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컸다. 또 회사를 옮겨야 했지만 주식 문제로 인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다. 무엇보다 큐티보다 일에 집중했다. 일대일제자양육 16주 과정이 끝나고 함께 영화 '라이온 킹'을 보았다. 그는 그 영화를 삶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봤더니 정리되지 않았던 일대일 제자양육의 문제들이 정리된다고 했다. 그리고 스스로 바보처럼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미련을 두고 끊지 못했던 삶의 여러 부분들을 지워냈다.

그날 이후 동반자는 주식을 내려놓고 이직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하는 귀한 시간도 가졌다. 참된 말씀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동반자의 변화된 모습들이 참으로 흐뭇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동반자만 변화된 게 아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반자로 인해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 우리의 기도제목에 이렇게 빨리 응답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헬로맘스쿨 스태프 간증

여성들을 위한 바로 그 시간

/ 진미경 팀장(강촌공동체)

서빙고 헬로맘스쿨에 오면 '성경 속 여성 인물들과 함께하는 브런치 타임'을 가질 수 있다. 지난 학기 주제가 된 성경 속 여성들은 한나와 수넴 여인, 마리아, 브리스길라, 요게벳, 잠언의 현숙한 여인이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들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자신을 투영해 보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여성의 입장과 신앙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강의가 필요하다. 성경 속 여성들이 기독교 신앙의 모범일 뿐 아니라 인류 보편사의 관점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 속 여인들이 어떻게 위기를 뚫고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생명을 부여하는 조상들의 명부에 올랐는지 등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여성들은 예수님의 동역자들이었다. 예수님의 뜻을 진정으로 이해했던 사람들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의 온전한 회복은 아내, 엄마, 여성, 한 인간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게 만들어 준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다보면 정체성 혼란과 역할 부재를 겪게 될 때가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다보면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곤고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아내로서의 정체성, 부부연합의 비밀, 엄마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한 진정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사 58:6)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누리교회 많은 여성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기를 소망한다. 성경 속 여성들의 순수한 신앙을 보고, 스스로를 새롭게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20191020-1266□-□□_□□□□□ 19. 10. 18. □□ 10:24 Page 12

장로칼럼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꿈

심길섭 장로
(TSMS 담당 장로)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가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선교의 비전을 받은 것이니 비전을 품고 떠나라고 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그 부르심에 순종한 온누리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선교를 보았다. Acts29사역은 계속되며, 사도행전 속 사도들의 선교는 지금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적이어야 하고, 이러한 교회는 세상 어디에나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의 전진기지이다.

TSMS(Torch Strategic Mission Scholarship)는 온누리교회와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가 함께하는 전략적 선교의 미전도종족 장학프로그램이다. 한 명의 선교사가 선교지에 파송되어 낯선 문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교회를 개척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지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헌신된 현지 선교사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전략적 선교가 필요한 지역의 현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그들은 체계적인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경험하고, 사역을 배워서 현지로 돌아간다. 교회와 신학교사역을 위해 헌신할 나라를 품은 지도자로 고국에 재파송하는 프로젝트다.

현재 재학생은 15개국 21명이다. 온누리교회 양육체계인 QT와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반 16주 과정 및 양육자반 수료, 예배자 훈련, 선교본부, 국제본부, 전도본부, 차세대본부, 대학청년본부 등 사역본부 탐방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CGNTV, 두란노서원, NGO 더멋진세상, 이주민을 위한 추석집회 하비스트를 통해 함께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특히 1학년생 10명은 온누리M미션과 국제예배에서 자기 나라 언어로 예배를 섬기는 인턴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2000선교본부와 온누리M미션, 국제본부와 영어예배, 글로벌일대일사역자와 양육자, 신대원과 관련기관이 연합사역으로 융합되어 섬기는 은혜 넘치는 선교현장이 되고 있다. 그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고국에 재파송될 때 온누리교회 선교사들과 함께 연합선교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선교가 경험했던 자치, 자립, 자전의 네비우스 선교정책이 많은 곳에서 펼쳐지기를 기도한다.

2018년까지 TSMS 졸업생이 44개국에 180명이다. 그들이 학교와 함께 현재 사역을 파악하고, 현지인 선교자원으로 사용되기를 원한다. 네팔에서는 신학대학총장과 대형교회 담임목사로 세워진 분들도 있다. 이라크에서는 온누리교회와 연합하여 교회를 세운 현지인 선교사도 있다.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 받고 있을 거라 믿는다.

온누리교회는 한국인 중심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다. 그러나 선교의 변화가 일어나서 선교지가 우리나라로 옮겨 왔다. 온누리M미션의 16개국 38개 예배와 국제본부 5개국 산하 언어별 예배에서 2,000여 명의 외국인들이 예배드리고 있다. 지리적 거리가 아니라 문화적 차이로 말하는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하나의 선교 변화는 TSMS와 같은 현지인 지도자를 선발하고, 체계적인 신학 교육과 훈련해서 고국으로 역파송 하는 선교이다. 이제는 선교 현장이 다민족, 다문화, 전 방향 선교로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되어간다. TSMS사역이 바로 올네이션스 선교라 생각한다.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권사칼럼

예배자, 지도자, 전도자 되기를

이숙인 권사
(중종로공동체)

스리랑카 선교사로 다녀온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스리랑카 국제학교 트리홈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그날들을 회상하며 글을 쓴다. 나는 2015년 1월 15일 새벽 4시 스리랑카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습하고 더운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손바람으로 쉽게 물러가지 않는 더위를 식히며 국제학교에 도착했다. 재잘재잘 떠들며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었다. 내가 맡게 된 트리홈 아이들이었다.

트리홈에 처음 방문하던 날 7명의 아이들이 내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은 채 운동장으로 뛰어 나갔다. 그 아이들에게는 축구가 전부였다. 그 아이들의 모습은 초라하고, 얼굴에 긴장이 가득했다. 기쁨이 하나도 없었고, 사람만 보면 피하거나 숨어버렸다. 과연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다 답을 내렸다. 그냥 이 아이들과 함께 오래 있어주면서 부모와 같은 사랑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 2년은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다. 아이들의 애달픈 사정과 상처에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다. 부모와 멀리 떨어져 트리홈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 없는 고아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문제아라고 낙인찍힌 아이들은 학교에서 물건이 하나라도 없어졌다 싶으면 바로 타깃이 되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고, 수업이 끝나면 안아주고, 작은 일에도 칭찬해주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고, 믿고, 사랑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곧장 트리홈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각자 할 일을 하고 공부했다.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될 무렵 2년 동안의 사역을 종료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그 아이들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스리랑카에 있는 그 아이들도 나를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고민 끝에 4개월 만에 다시 스리랑카로 떠나는 비행기를 탔다. 2017년 4월 28일 다시 돌아온 스리랑카는 공기부터 반가웠다. 새벽 4시 모두가 잘 시간에 아이들이 장영미 선교사님과 함께 공항에 마중을 나와 있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고마웠는지 모른다.

다시 돌아온 스리랑카에서 아이들과 또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이들의 삶에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꿈이 생겼다. 유명한 미용사가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싶다는 아이, 목회자가 되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다는 아이, 의사가 되어 아픈 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고 싶다는 아이, 자신의 기술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아이 등 각자의 꿈을 꾸고 있다.

이제 그 아이들이 각자의 꿈을 가지고 국제학교를 졸업했다. 나는 아이들의 졸업과 함께 사역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그 아이들의 모습이 생생하다. 앞으로 펼쳐질 아이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7명의 아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는 예배자, 스리랑카의 지도자, 복음의 전도자 되기를 축복한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이 사랑의 손으로 그 아이들의 인생을 붙들어주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리얼(Real) 크리스천

이종현 목사
(SNS공동체)

스마트폰이 개발되기 전에는 저마다 다른 곳을 응시하거나 책을 보는 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오늘날 모습은 조금 다르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은 저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화면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얻고, 업무를 처리하며, 관계를 맺어간다. 그러나 그곳에는 늘 한계가 있고 오해가 있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역시 이러한 제한된 감각에만 의존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오감을 사용한 경험을 통해 정보를 얻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제한된 감각으로 받아들여진 경험을 토대로 정보를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영화 제작자이자 대중문화 비판가인 기 드보르(Guy-Ernest Debord)는 그의 저서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우리가 스펙터클 사회에 포획되어 훈육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현실 세계가 단순한 이미지들로 바뀌는 곳에서는 이 단순한 이미지들이 현실적 존재가 되고, 또한 무자각적인 행동의 효과적인 동인이 된다. 스펙터클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전문 매체들에 의존해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경향으로서(세계는 더 이상 직접 파악될 수 없다) 특권적인 인간 감각을 당연히 시각에서 찾는데 다른 시대에 그 특권적 인간 감각은 촉각이었다."

스펙터클의 사회 속에 크리스천 역시 제한된 감각으로 얻어진 파편화된 정보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유혹 앞에 늘 놓여 있다. 어느 목회자의 멋진 설교를 통해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은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믿고, 수많은 신앙서적을 통해 자신만의 신학과 신앙을 정립해가며 뿌듯해 하지만 정작 변화되지 않는 삶과 신앙의 괴리를 보며 좌절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한계를 극복하고 균형 잡힌 신앙을 배울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안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이미 34년 동안 실천해 오고 있다. 머리만 커지는 신앙인, 말만 잘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리얼(Real)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음식을 먹어보고, 그들의 문화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하시는지를 경험해봐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책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매년 여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떠나는 전 교회적인 선교의 움직임은 사실 온누리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이다. 전 교회적으로 선교에 목숨 거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지난 34년 동안 온누리교회가 선교를 통해 경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은 다가오는 다음세대들에게 전해줄 귀한 신앙의 유산으로 남게 될 것이다. 다음 세대들 또한 스마트폰이 아닌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마다의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게 될 것이다. 선교를 통해 손바닥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광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 건강한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에 넘쳐나기를 기대해본다.

20191020-1266□-□□_□□□□□ 19. 10. 18. □□ 10:24 Page 13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참된 회개(6) 상한 영혼의 제사

진정한 회개란 모태로부터 죄인 된 영혼, 뼛속까지 죄가 스며있는 영혼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지 못하면 참된 회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개는 어떤 행실을 고치는 것 이상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영이 내 안에 창조되는 것입니다. 원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정직해도 그 정직은 100% 아닙니다. 정결도 100% 아닙니다. 진실도 100%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이 내 안에 창조되지 않으면 진정한 진실, 정직, 성결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님,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나의 옛 생명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직과 진실과 성결을 이룰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결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진실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을 내 안에 창조해 달라는 것이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기도제목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회복

셋째, 다윗은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과 교제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내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부러뜨리신 뼈들도 즐거워할 것입니다"(8절).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12절).

참된 회개란 죄를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로 나아가게 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고, 거짓을 행하던 다윗이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는 우리가 통곡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창조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경험에는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이 따라옵니다.

8절에서 "주께서 부러뜨리신 뼈들로 즐거워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뼈가 부러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실 것입니다. 뼈가 다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뼈들이 다 부서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뼈가 부서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거짓을 숨기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되었을 때를 마치 뼈가 부러진 것 같은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께서 부러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뼈들이 다 부서졌다고 고백했을까요? 매우 심각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지옥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뼈들이 부러진 것 같은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 뼈들을 부러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뼈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던 이가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상한 영혼의 제사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번제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16~17절).

마지막 회개 시의 결론으로 제사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구약에서 제사란 하나님 앞으로 인간이 나아갈 때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와 의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역할이 정반대입니다. 다윗은 참된 회개를 경험하면서 참된 제사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제정하신 목적은 형식적, 종교적, 피상적, 행위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땅히 있어야 할 마음의 태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 그 자체입니다. 상한 영혼(broken heart)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껍데기가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자기기만, 포장, 숨겨진 것, 자신의 깊은 마음의 죄악을 숨겼던 모든 껍데기가 깨어져서 영혼 속에 있는 중심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옥합이 깨어졌을 때 안에 있는 향유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상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추려 하지 않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 영혼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두 드러나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서 더 이상 은폐가 불가능한 영혼입니다.

뉴스에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감추는 데 성공했을 뿐이고, 그 사람은 감추는 데 실패했을 뿐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세상에는 감옥에 간 죄인과 가지 않은 죄인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혼의 껍데기가 다 깨어져서 우리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것들이 모두 흘러나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포장이 아닙니다. 문화생활,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겉을 페인트로 칠하듯 포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상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의 제사입니다. 참된 회개가 담겨있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꽃은 상할 때만 향기가 나는 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드러나고, 뼈가 꺾어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죄인 됨을 고백하고,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과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상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언제였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가장 크게 웃었을 때가 아니라 가장 깊이 애통하고 슬퍼했을 때 아닙니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죄를 포장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에 취해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가 밑바닥까지 드러나서 더 낮아질 수 없을 데까지 낮아져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아니었습니까? 참된 회개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즐거움을 회복시켜 줍니다. 다윗처럼 끔찍한 죄가 있을지라도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회개를 기뻐해야 하고, 시편 51편의 회개의 여정을 밟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인 됨을 통회하고,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달라고 간구하며, 상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깨어진 영혼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선교지에서 온 편지

"카안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이곳은 여름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6~7월 본부사역과 7~8월 'Home to Kingdom사역'(안식년)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는 풀어 놓았던 짐을 다시 싸고 추수의 사역지로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20년 전 주님께서 저희를 T국으로 보내셨을 때에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는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에서 인생의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7월 초 T국의 현지인 카안(12세, 남)과 아버지 세르달, 어머니 카드리에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카안이 근육과 뼈의 뒤틀림으로 목과 팔이 돌아가고, 잘 걷지 못하는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카안의 부모들이 T국에서 알아보고 많은 병원을 돌아다닌 결과 T국에서는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카안의 부모와 지인들이 TV방송과 인터넷으로 이 질병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인 천안의 어느 한의원을 발견하고 물어물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이 병원예약을 다 했고,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숙지했으며, 비행기 티켓도 예약을 했으니까 한국에서 아는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고 영어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다른 음식과 문화에도 오직 아들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한국행을 계획한 것입니다.

카안 가족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저희 가족이 공항에 나가 그들을 영접하고 차로 태워서 천안에 있는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숙박, 음식, 교통, 핸드폰 개통 등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생활을 안내해 주는 과정에서 20년 전 T국에 정착했던 저희 가족의 삶이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에는 아내와 딸이 이들의 통역사가 되어서 하루 종일 진료과정을 통역하면서 도와주었습니다. 카안과 그 가족들은 약 두 달 정도 한국에 체류하면서 주중에는 매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카안의 아버지는 아들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고, 중간에서 도와주는 저희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카안은 호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질병은 완치가 쉽지 않고, 통계적으로 어릴 때 발병한 경우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복음을 한두 번 나누었지만 진지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보이고는 있지만 강한 이슬람의 B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났고 아들이 아프니까 알라에게 더욱 귀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주전 주말에는 카안과 가족들을 남산에 데려가서 구경을 시켜 주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즐거워하는 카안과 가족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카안이 잘 회복되고, 카안과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텐데 생각했습니다. 카안과 그 가족들이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영혼의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종, 천사랑 선교사(중동 A국)

1266호 201901020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9. 10. 18. 오후 10:03 페이지 1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영어예배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따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청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봉사자예배 9:30/네팔어예배 10:30 제2센터/차세대 11: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샬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셔틀운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02호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서빙고 창조신앙스쿨
일정: 10월 20일~11월 17일 매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홍보관
문의: 010-7292-2349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 단원모집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 한동홀
문의: 정상구 총무 (010-4731-6514)
홈페이지 참조 ommc.kr

온누리선교재단 재산종합보험 업체 선정
계약: 2020년 1월 1일~2021년 1월 1일(추가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대상: 62건(첨부자료 참조)
자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대한손해보험협회 가입된 정회원 손해보험사, 지급여력비율 180% 이상인 업체
문의: 양희찬 대리(02-3215-3134)
*자세한 사항은 BNIS 입찰정보 (http://www.bnis.co.kr) 참고

온누리 세계관학교
일시: 11월 13일~12월 4일 매주 수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B2 콘서트홀
참가비: 2만원(사전등록 15,000원)
문의: 02-3215-3637, 010-3562-8103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 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 심방, 전도(사랑홀 환우 요청함)

양재 샬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송세호 팀장(010-8634-9030)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오전 10:30 본관 B3층 JDS홀

인도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월 두 번째 월 오후 7시 30분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충성홀
문의: 010-2735-3807

일대일 양육자 Wake-Up 과정
일시: 평일반(11월 7일~11월 28일 매주 목 오전 10시~12시
주일반(11월 10일~12월 1일 매 주일 오전 8시~10시
장소: 평일반 양재 온누리교회 비전A, 주일반 양재 온누리교회 302호
신청: 아이스쿨(회비 1만원)
문의: 안지숙 간사 02-570-7349

부 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오전7:00/2부오전9:00/3부오전11:30/4부오후2:00/5부오후4:00(대청예배)/6부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본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14:0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오전 9:00, 11:30 / 고등부-오전 9:00,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기쁨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 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주일)
대학부 오후 2시(경찬홀) / 청년부 오후 3시(믿음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3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시, 11:30 드림홀
유아부 오전 9시, 11:30 조이홀
유치부 오전 9:00, 11:30 소망홀
유년부 오전 9:00(초1~3), 11:30(초1~2) 사랑홀
초등부 오전 9:00(초4~6), 11:30(초3~4) 경찬홀
소년부 오전 11:30(초5~6) 믿음홀
중등부 오전 9시 비전홀 / 고등부 오전 9시 믿음홀
차세대 영어예배 오전 11:30 비전홀

대 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젊은예배 오후 2시 30분 본당
대학부 오후 2시 30분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 3부(청년) 오후 2:00 본당 / 4부(저녁) 오후 7:00 본당 / 다문화 주일 11:00 4층 온유홀
외국어예배
힌디어 토요일 19:00 5층 믿음홀 / 네팔어 토요일 19:00 5층 소망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 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수요일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10:30 본당
수요영성예배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쉘터

인 천
032.437.9686

※예배장소 및 시간에 대한 문의는 목회지원실(032-437-9686)로 연락바랍니다.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9/1,8,15, 22, 29: 연세대학교 종합관(송도동 162-1)
파워웨이브(중고등부)예배 제너셈 7층(송도동 179-1)
대학청년부, 국제예배 제너셈 7층(송도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제너셈 7층(송도동 179-1)
주일예배
성인예배 9시/11:25/오후 1:45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사랑부 11:20, 꿈땅1부 9:00, 파워웨이브1부 9:00, 파워웨이브2부 11:20, 헤븐리키즈 오후 13: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2시, 몽골어예배 오후 2시

강 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사랑홀
사랑부 오전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양 지
0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2부 예배 / 11:3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3부 두드림예배 / 14:3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아) / 11:30 / 2층 드림씨드홀(본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3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3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30 / 2층 아펜젤러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30 / 2층 스크랜턴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3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1266호 201901020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9. 10. 18. 오후 10:03 페이지 2

온누리교회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손신국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4번길 24
  제너셈 7층
- **강동**
  노치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송영동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1 Centorian Dr. Mairangi, Auckland.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동**
  채기석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박만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ànghǎishì Mǐnhángqū Cáobǎolù 1243hào yǒngwèishāngwùdàshà 3lóu 388shì
-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윤길중 신기섭
김상수 이해영 손신국 서경남
노치형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지영 곽상학 권용갑
길혜영 김경훈 김관수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정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렴문홍 문영재 문장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무엘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행삼 백인규 변대섭
서 현 손정훈 송석근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차 안광국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원유경 웨슬리맥커리 유수열
유영순 유승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탁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윤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임경헌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한효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허원희 황재명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기락 김재승 안사무엘 이우람
최대홍 최성규 한은선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박이호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김기범 김바울 김세현 김종영
김창성 김혜경 네트라 넬슨제닝스
랜디베딩줄렉스 마주마누룽 민현식 바랏라살리
박씨마 서수민 싱루아마놉 안희진
이진이 유승덕 유진아 윤치연
임선아 제인량 최일관 차제이미
크리스티안

◈전도사(파트)
강성효 고주민 권은영 권영현
김근희 김경민 김두일 김세환
김승겸 김수영 김앤드류 김은하
김은혜 김유민 김용태 김영신
김정미 김정호 김지선 김지환
김진성 김진아 김주영 김종균
김충성 김태영 김태주 김태환
김태희 김한국 김형중 김형태
나지혜 니시다토모코 노태규 민희준
민혜영 박근명 박미애 박신광
박승홍 박영규 박은빛 박이호
박지수 박현식 방세미 빌 케
배강석 배명지 백운진 서영찬
서영철 쇼바수와르 송동주 송선애
송우항 신대종 신동욱 신하선
신현민 신현아 양주영 양진범
여지휘 연공주 오국현 오명도
오영민 오준현 오현석 우승민
윤경선 윤상복 윤수신 윤슬기
윤지은 윤준석 윤효정 이루주
이민아 이민희 이명진 이보라
이상관 이상은 이신임 이선영
이성광 이세영 이수호 이엘렌
이용민 이원준 이은정 이진기
이호준 이현석 이향순 임광명
임송아 임지성 임정민 장광석
장미숙 장새힘 장윤진 장재원
전소리 정성진 정에스더 정연상
정영광 조준기 주영상 주하늘
지수정 최규종 최은영 최선재
최영빈 최정현 최종현 최휘준
하성희 한영철 허루슬란 현신원
황귀희 황연신 황유일 khag-vasuren Gan-Otgon Donald Joshua Wabwire

◈사역장로
강기석 강인지 강찬석 고광필
구재영 권도원 권영석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열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수광 김수역 김수웅 김승열
김영수 김용성 김 웅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이곤
김인화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하중 김학모 김현철 노재한
노흥규 류지영 문창극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상송 박영태
박용국 박찬빈 배종수 백승웅
백호현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서창희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우권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종인
안태환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완영 유재천
윤성열 윤영섭 윤영오 윤지준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국주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옥연 이용경 이용하 이우곤
이융대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택 장양희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돈영 정병균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용화
정윤채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항진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천영무 최 명
최선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피터웰디 하영철
하용기 한규종 한종대 한형식
함선호 허형석 홍기명 홍덕표
홍종철 황영옥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동수 강부순 강신익 강영재
강의선 강철호 강태욱 고다이라
고영주 곽진성 권득한 권오습
권오혁 권용성 권용한 김관근
김관식 김광하 김기영 김남식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종 김명현 김명훈
김병순 김병옥 김상섭 김상인
김상집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연상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 완 김용기
김용호 김웅배 김 원 김의득
김인선 김장열 김재욱 김재일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철주 김태경 김해기 김형겸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상권 나 영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옥 남정진 노기홍
류기범 명영찬 문성기 문쌍찬
문영기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명률 박봉래 박석봉 박성규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종현
박지수 박치완 박태성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흥균 박흥선
방찬종 배 문 배기영 백남인
백홍기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용 송동섭 송영범
송종환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영각 신학철
신헌승 신현종 심길섭 심상달
심희돈 안동혁 안성영 안용태
양상식 양유식 양주현 양춘경
양충식 오상록 오성훈 오이식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병진
유병훈 유의준 유재홍 유 형
육동건 윤기홍 윤석우 윤영각
윤현덕 이경찬 이경호 이경훈
이관수 이광순 이광형 이규천
이기증 이길수 이남수 이남식
이동규 이동욱 이동희 이백용
이봉의 이상기 이상도 이상율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은일 이인용
이장로 이재경 이재광 이재규
이정구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우 이종철 이 철 이태열
이태환 이해달 이헌규 이홍선
임광순 임병수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 훈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 광 장광열 장규환
장선철 장형준 전영수 전한백
정광열 정대서 정명호 정문규
정상기 정수업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운섭 정운오
정진하 정진호 정태경 정파종
정학영 정희원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현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청구 조희동 주재량
진종구 차준구 차준한 최도성
최득린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주관 최한우
최현재 편무옥 하성기 한갑수
한덕종 한백진 한상규 한양희
한왕석 한창격 한충희 함공식
함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필우 호종일 홍범식
홍성호 홍의택 홍정표 홍충선
홍해남 황병원 황윤일 황의서

◈명예장로
마흥규 문태준 박동순 양원명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임대지
장옥룡 장응복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차드브릭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유재건
이경희 전태경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오희경
유선애 윤은희 이미선 이명근
이신영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혁재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현상준

◈반주자
김기아 김병성 김선경 김성규
김수현 김순인 김연아 김은경
김은섭 김은실 김은영 김인영
김주나 금민희 남궁진 노성희
박선희 박 숙 박영숙 박진용
방 휘 서 원 석지혜 송효빈
신은혜 안은경 안은영 안지연
양지연 양현선 염주희 우경진
유재경 유지영 윤정희 윤후명
윤현진 이강석 이나래 이예은
이예진 이혜진 정경미 정다혜
정지은 조영혜 조한나 최은미
최희정 황보승 한찬미 황대준
허윤선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철진
김태완 박만규 박신웅 송영동
유현목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야마 신 이 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마크최 박재영 서재범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정장철

◈부목사
강일영 강일하 강찬호 금동섭
김도일 김동은 김명성 김인숙
김시연 김성종 김진우 김재형
김찬우 김태환 노경호 박대원
박수환 박주영 박종훈 방지남
배성우 백도훈 백인호 변범섭
서성광 신영흠 손미경 엄영기
우윤상 유동우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성영 이은택 이한규
이형근 임봉순 오정택 전상현
전홍천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의환 진영국 최영진
최 욱 최정무 홍동욱 홍성훈
홍세반 홍정표 Bob Koo Joseph
Chu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강은주 김성민 김성연 김성진
김성현 김인혜 김정옥 김지현
김진완 김창식 김현경 구혜선
마커스 문하나 박미은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향진 박현욱
배윤희 서재욱 설산정 손주은
송민선 신기원 심형진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상수 이수연
이은희 이용기 이재경 이주영
이현우 임지훈 윤성민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지자영 전희동
정 결 정선진 정은숙 정인교
정진영 지자영 조 단 최정수
최지연 최진숙 하보라 하청훈
한현희 코바야시 메구 핸슨오
Christine Daniel Kim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onathan Kim Rachel Back SamLee Tommie Njobvu

◈장로
고성환 권덕수 김경덕 김수호
김재동 박호택 백 학 손진성
손정래 신중수 이광철 이덕한
이문호 이상덕 이상헌 이준상
여훈필 장민용 장우진 조규배
조성민 허규회 홍관희 홍규석

◈명예장로
김용석

◈협동장로
강광일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정두호
정석환 최승호 윤한돈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헌식 서인택
최태영 김종수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용재 김정보
김좌겸 김준걸 김진용 남명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이지은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우아경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소천

10/12(토) 특별한초대 김영정 성도 부친상 고 김종기
10/13(주일) 이촌 최방실 성도 모친상 고 강재영
10/13(주일) 여의도 이건복 성도 모친상 고 이종호
10/13(주일) 강서 김동원 성도 모친상 고 박영순
10/15(화) 고양은평 오선영 성도 부친상 고 오만철
10/15(화) 강남D 김세영 성도 부친상 고 김윤기
10/16(수) 강남A 김형주 집사 부인상 고 은진원
10/17(목) 서대문 오상진 집사 모친상 고 신영희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3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 입소, 입교생 모집
내용: 가출 및 가정복귀가 어려운 남자청소년 쉼터 입소 및 하나로꿈학교(교육청 지정 대안학교) 입교
대상: 입소생(15~20세) / 입교생(경기도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문의: 유호연 팀장(031-399-7997)

온누리요양센터 및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찬양, 성경읽기 등 봉사자 모집
문의: 이진욱 복지팀장(031-334-909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55세 이상 지역주민 무료취업 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 55세 이상 구직자(신분증 지참 방문 접수)
주요직종: 경비원, 청소원, 요양보호사, 주차관리원, 조리원 등
문의: 박나희 사회복지사(02-796-7665)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배식 및 설거지 봉사자 모집
내용: 11:00~14:00 / 점심식사 제공
문의: 김예진 사회복지사(070-7163-2465)

청파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봉사자 요청
활동일시: 화, 수, 목 9:30~14:30(식사시간 포함)
문의: 이기엽 팀장(02-703-6011)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 이영환 팀장(02-985-3609)

재 정

십일조 계좌: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의땅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8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 양 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자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결혼

10월 26일 토요일 오전 11:00 서빙고 본당
최경원, 유양순(꿈이 있는 교회 목사, 사모)의 아들
최만유(프랑크푸르트 사랑의교회)
원종호, 이은희(온누리교회 장로, 권사)의 딸
원혜연(프랑크푸르트 사랑의교회)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2:00 서빙고 본당
김태자(하늘샘교회 집사)의 아들 황찬희(온누리교회)
반현호, 김정숙의 딸 반선정(온누리교회)

10월 26일 토요일 오전 11:00 양재 사랑홀
신재성, 김기숙(웨스트선교회 목사, 사모)의 아들
신능호(웨스트선교회)
박현규, 최순이(온누리교회 장로, 권사)의 딸
박화인(온누리교회)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2:00 양재 사랑홀
나원, 김은실(국제신학대학교회 목사, 사모)의 아들
나요한(뉴저지온누리교회)
이성수, 김미영(뉴저지온누리교회 집사)의 딸
이하연(뉴저지온누리교회)

1266호 201901020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9. 10. 18. 오후 10:03 페이지 3

복 음 주 의 목 사 들 의 공 감 토 크 프 로 그 램

TGC코리아 공동기획

목사들의 복음을 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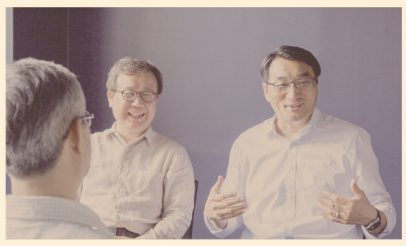
한국교회의 고민을
유쾌하고 따뜻한 시각으로 풀어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방송

MC 윤광서 목사(영화교회), 최원준 목사(안양제일교회)

2편 위기의 가정 2부 '결혼의 목적' 10월 21일 (월) 방송

출연 온기섭 목사(의왕우리교회),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0-1660 **문의** 02-796-2243 CGNTV